

마을공동체 ‘무지개누리’, 아이들 순수한 감성 담은 전시 마련

‘무지갯빛 바람 한 조각’ 주제…지역민에 감동 선사

11월 22일까지 나주 ‘다울림창작소 2층 전시장’서

전남 나주의 마을공동체가 아이들의 순수한 감성과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첫 번째 미술전시회가 마련된다.

마을공동체 무지개누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행복 드림 돌봄지원사업의 하나로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개막, 11월 22일까지 나주시 학생운동길에 위치한 ‘다울림창작소 2층 전시장’에서 ‘무지갯빛 바람 한 조각’을 주제로 한 미술전시회를 진행한다.

“아이들 각자가 장벽 없이 서로 어우러지며, 저마다 나뉠게 빛나는 자체발광”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전시는 무지개누리에서 여는 첫번째 순서로, 편견없는 마을 안에서 모든 아이가 다름을 틀림이 아닌 특별한 개성으로 마주하며, 모두가 주인공이 돼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꿈꾸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출품작들은 고사리손으로 빚어낸 다채로운 색감과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전시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에게 서로의 차이를 지우고 온기를 채우는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지개누리 관계자는 “전남도와 나주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끌어온 마을공동체 돌봄 사업이 아

이들의 빛나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벅차다”라며 “아이들이 편견 없이 마음껏 세상을 향해 쏘아 올린 무지갯빛 자체발광 축제의 만큼,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걸음 하셔서 아이들의 순수한 세상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지역 사회 내에서 장벽을 허무는 포용적 돌봄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가장 모범적 사례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오픈식(개막식)은 지난 17일 오후 2시 다울림창작소 2층 전시장에서 마을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세상 앞에 당당히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의 소중한 도전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성황리 열렸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마을공동체 무지개누리는 지난 15일 개막, 11월 22일까지 나주시 학생운동길에 위치한 ‘다울림창작소 2층 전시장’에서 미술전시회를 진행한다.

여주시-부산진구,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자매도시 동행

300만원씩 기탁…상생발전 협력

지역 발전·나눔문화 확산 뜻모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주시는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실에서 ‘여주시-부산진구 고향사랑기부 상호기부 기탁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2024년 자매결연 이후 이어온 두 도시의 우정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간 교류와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식에는 서영학 여주시장과 김영욱 부산진구 구청장을 비롯한 양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 도시는 각각 300만 원을 상호기부하며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방문에는 부산진구 6급 계장 30여 명도 함께 여수에서 워크숍을 갖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정책 사례를 배우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예술의 섬 장도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여수해상케이블카, 항일암 등을 방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실에서 서영학 여주시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왼쪽 두번째)이 ‘여주시-부산진구 고향사랑기부 상호기부 기탁식’을 진행했다.

문해 예술·해양관광·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여수의 지역발전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서영학 여주시장은 “자매결연 이후 부산진구와 이어온 교류가 상호기부로 한층 깊어지게 됐다”며

“세계섬박람회를 찾아주신 부산진구 직원 여러분께 여수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두 도시 간 상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산구, 재난관리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2년 연속 정부표창…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사진)가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국무총리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정부표창을 수상했으며, 재난 예방·대응 사업에 활용할 특별교부세 7억원도 확보했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2025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대응 체계와 업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광산구는 재난안전예산 운영과 재난관리기금 관리, 재해구호 기반시설 확보, 현장 수습·관리 역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는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시



박병규

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습 침수구역의 하수도 정비 등 재해 예방 활동도 추진해 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7억원은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 등 안전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 이와 함께 급경사지 정비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재해 취약지역의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재난 예방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재난관리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고성민 제5대 신안경찰서장 취임

“기본과 원칙 지켜 군민 안전 최우선”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5대 신안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고성민 총경은 최근 취임사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치안활동과 상호 배려·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조성에 군민의 안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서장은 “1025개의 도서로 형성된 신안군은 지리적 특수성과 급변하는 치안환경으로 인해 세심하고 적극적인 치안활동이 요구된다”며 “군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민

이어“ 경찰관은 기본에 입각한 원칙을 일관되게 준수할 때 공정하고 임정하며 비정상이 바로잡히는 경찰의 가치가 확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조성에 힘쓰겠다. 고 서장은 “동료는 현장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며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광주은행, 통합시 출범 기념 ‘5th 하모니콘서트’ 성황

5000여명 관객 ‘문화 소통의 장’ 포레스텔라·임창정·린 등 무대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5th 하모니콘서트’가 5000여명의 관객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콘서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고, 그동안 광주은행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티켓 응모 단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를 비롯해 임창정과 린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 가운데 음악을 매개로 지역민과 고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소통의 장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5th 하모니콘서트’를 개최했다.

으로 꾸며져 의미를 더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난 58년간 광주은행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고자 이번 콘

서트를 마련했다”며 “오늘 공연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로 기억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광양시, 최고경영인상·최고근로인상·산업평화상 수상자 3인 선정

29일 광양커뮤니티센터서 표창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올해의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자 3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지원대책위원회 공적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는 최고경영인상에 천중수 ㈜광양테크 대표이사, 최고근로인상에 정원재 포스코광양제철소 차장, 산업평화상에 김중준 포스코GYR테크 주임이다.

최고경영인상 수상자인 천중수 대표이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광양테크 대표이사로 일하



천중수



정원재



김중권

며 건설기계 정비 및 검사, 장비, 설비 가공분야에서 작업환경 개선, 업무효율화, 근로자 작업능력 향상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어린이보육재단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최고근로인상 수상자인 정원재 차장은 36년 간 광양제철소에 근무하며 제1선 전 기설비 관리분야에서 품질 향상과 공정개선에 힘썼다. 특히 등록과 제안 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산업평화상 수상자인 김중준 주임은 전 노경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힘썼다. 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며 고위험 작업 위험성평가 등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들 수상자들은 오는 29일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는 ‘제5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에 표창과 상패를 수여하게 된다. 광양=귀권진 기자 kkin@



광주시동구새마을회는 최근 다문화가족 독서퀴즈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동구새마을회, 독서퀴즈대회 개최

독서 문화 확산…탄소중립실천도

광주시동구새마을회는 최근 다문화가족 독서퀴즈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세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의 하나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광주동구가족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20여명이 참여해 책 읽

은 문화 확산과 함께 알뜰도서관장장을 통해 독서 생활화 운동을 병행했다.

또 EM활성액을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갖고 탄소중립실천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김대영 광주시동구새마을회 회장은 “새마을가족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보다 높은 수준의 공동체운동으로 봉사와 화합을 동력 삼아 이웃과 함께 인문도시 동구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